

승가 기본교육 개편안 공청회 '반쪽'

전국강원교직자련 '인정 불가' 성명 발표하고 불참... 5월 4일 재논의

조계종 교육원이 개편한 승가 기본교육 개편안 공청회가 전국 강원 교직자 스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됐다.

전국강원교직자련합회(회장 법광, 이하 연합회)는 4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 시작 20여 분 전에 '소통 없는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두 국제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개편안 공청회가 전국 강원 교직자 스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4월 30일 개최됐다. 오른쪽부터 보광·주경·법안·법진·무애 스님.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원의 승가 기본교육과정 개편안은 일방적·획일적 교육개편으로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교육백년대계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세간의 잘못을 따르는 것"이라며 "승가 기본교육을 서구식 교육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교육원의 개편안은 조계종지를 취득해 정체성을 확립시킨다는 종단 가치품과 거리가 멀고 교육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 없이 일방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대부분 대승경전이 한문텍스트인 환경에서 한문교육은 조계종 승려라면 당연히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이라며 "교육원이 교과과정 개편안에서 밝힌 교재의 한글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각 기본교육기관의 장

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기초연설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교육과정을 다듬어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에서 교수스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며 "교수스님을 대상으로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게 된 것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교육원이 개편하고 공청하는 과정에서 상의와 논의 없이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전통 강원 교직자 스님들이 개편안에 제시한 의견은 기본교육과정에서 넘어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조계종환경위원회 위원장 주경 스님 사회로 교육원 교육

부장 법안 스님, 동국대 보광 스님, 중앙승가대 본각 스님, 송광사 강사 무애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 동화사 승가대학장 해월 스님,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무애 스님을 제외한 패널들은 교육원의 개편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보광 스님은 "전통강원 전통승가대의 장점이 많지만 이 장점만으로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지 살펴 300년된 교과과정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단과 대학 재단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전통강원을 제도권 편입, 사이버 대학을 설립해 전통교육과 현대화

된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각 스님은 개편안을 적용할 대상에 대한 이해, 가르침의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는 수행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출가자, 출가자 수가 급감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개편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한글화는 적극 찬성한다. 한글화 하되 대강경을 볼수 있는 끈나뭇을 놓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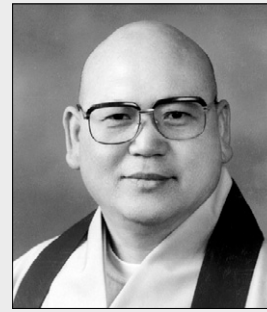
무애 스님은 한글 위주의 교육개편안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한글화로 이루어진 한역불전을 전문화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전통강원의 전문화된 번역, 언어능력 향상의 장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강원교육을 전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장 법안 스님은 공청회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교육원이 소통하지 않았다는 강원교직자스님들의 주장은 억측이다"라며 "5월 4일 공청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뒷말만 무성했던 승가교육 개선안에 직접적인 반발이 드러난 것에 대해 교육원 집행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동섭·이상인 기자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 선출



월탄 스님(정주 용화사 회주·사진)이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의회의(의장 종산)는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5차 원로의회의를 열고 임기만료된 월탄 스님 후임에 월탄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원로의원들은 제18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통과·상정된 수석사 방장 설정 스님의 대종사 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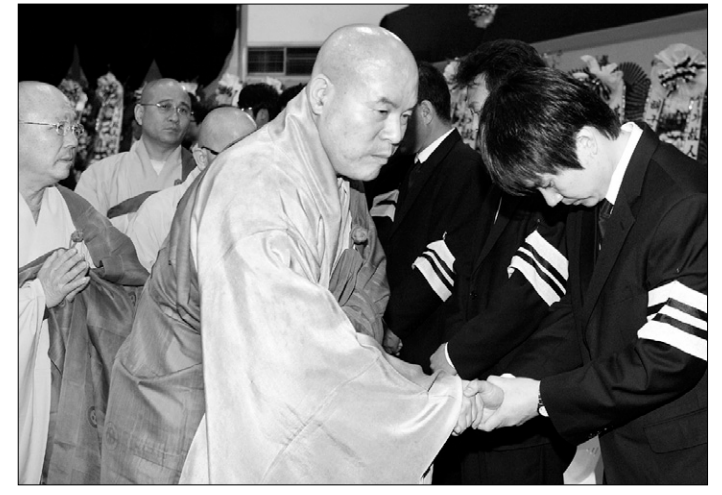
하지만 이날 예정됐던 원로의원들의 개인명의 재산 사후 종단 귀속 유언장 작성은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원로의회의 사무처장 덕문 스님(호법부장)은 원로의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고령의 원로의원 스님들이 장시간 화의로 불편하셔서 유언장 작성 대신 개인명의 재산 사후 종단 귀속과 관련한 종명을 적극 수용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로의회의스님들은 담화문에서 "원로의원 전원은 수행자의 상징인 무소유 가르침에 입각해 사후 개인명의 재산 일체를 종단에 출현할 것을 공표한다. 종도들도 작은 이유를 달아 이의제기할 것이 아니라 수행공동체 일원·부처님 참 제자·종도로서 수회동행 해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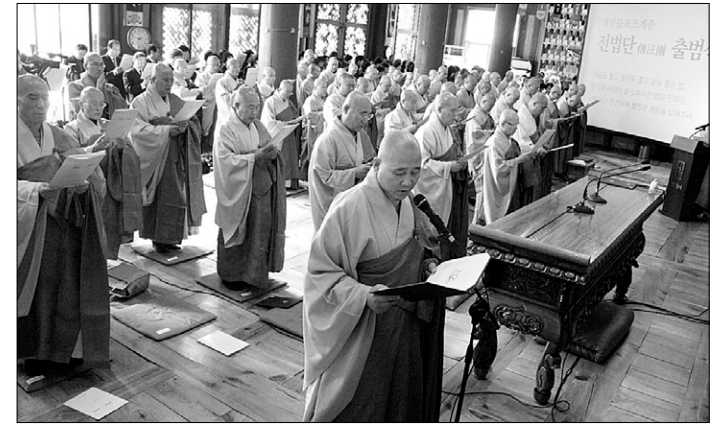
한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제33대 집행부 스님 40여 명)은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종무기관 유언장 작성식'을 개최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친안함 회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포교원장 혜종 스님, 군중특별교구장 자광 스님 등 30여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은 4월 27일 친안함 회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평택 제2합대 사령부를 찾아 조문하고 위로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등은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조계종 전법단 출범 2010년 수도권 취약분야 중심 활동



조계종 전법단은 4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범식을 봉행하고, 불법홍포·중생교화에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포교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포교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조계종 전법단이 4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범식을 봉행했다.

전법단은 포교원장 혜종 스님을 총재, 포교부장 계성 스님을 단장으로 하고, 자문법사단, 지도법사단(법회와 신행활동을 지도할 스님 108명), 전법지원단(신행지도·강의의 가능 재가불자 200여 명), 전법 후원회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전법활동을 할 지도법사단은 연말까지 500여 명 규모로 조직된다.

출범식에서는 각 조직 대표도 위촉됐다. 자문법사단장 지원 스님(서울 삼보사)과 성일 스님(화성 신흥사), 지도법사단장 법장 스님(무진법장사), 전법지원단은 계영석씨가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또 어린이·청소년 중심도량으로 선정된 22개 사찰 중 성원 스님(제주 약천사)

이 대표로 기념 현판을 전달 받았다. 전법단은 △계종별(어린이·청소년·대학생·군장병 등) △분야별(직장직능·병원·장애인 등) △지역별 포교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설법·상담·수행·신행 등의 활동을 펼친다. 포교원은 이를 위한 포교지침·자료를 준비하고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미래 한국 불교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며 "이런 현실을 극복 하기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원력을 세워 포교하는 스님·불자들을 전국에서 모아 전법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전법단 발족을 계기로 각 지역에서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는 스님들과 재가단체의 역량이 결집돼 실질적인 포교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성주 기자

부처님 법음 온누리에 불교방송 개국 20주년 리셉션

BBS 불교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4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정운찬 국무총리, 김형오 국회의장 등 500여 명의 종교·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내 불교 방송 개국 20주년을 축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신 부처님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세계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불교방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불교계

유일의 지상과 방송인 불교방송은 TV와 라디오, 신문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매체로 성년을 맞았다"며 "조계종도 불교방송과 함께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인사했다.

이사장 영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불교방송의 주변환경과 내부여건이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불교방송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확신했다.

중생의 보살화, 사회의 정도화를 추구하고자 1990년 5월 1일 개국한 불교방송은 전국의 63.7%가 청취권이다.

이상은 기자

성문 스님 당선 재확인 조계종 선관위 확정... 선문 스님 수용 불가

4월 22일 치러진 대구 동화사 주지 선거의 재개표 결과 성문 스님의 주지후보 당선이 재확인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30일 제223차 회의를 열고 동화사 주지 선거 재개표 결과 무효표 3표를 발견했다. 무효표 3표 중 1표는 성문 스님의 것으로 스님은 128표를 얻어 당선에 결정됐다. 2표가 무효처리된 선문 스님은 127표이다. 선문 스님 측이 이의제기했던 교구선거관리위원장 날인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했다.

이에 대해 선문 스님 측은 1표였던 무효표가 3표가 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문 스님은 "교구선거관리위원

장이 무효표는 1표 뿐이라고 말했다는데 3표가 나왔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보존을 포함한 이의제기를 했다. 동영상 확인 후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증언이 사실로 판명되면 부정투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동화사 주지 후보 선문 스님 선거비상대책위원회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무효표의 유효 처리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의 제청 보고 없이 산중총회의장(현 주지)이 선거결과 발표 △산중총회 규정에 따른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승합 우선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제기했다.

조동섭 기자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심으로 밝힌 연등 상생하는 부산시민

Lotus Lantern Festival

부산 연등축제

2010. 5. 16. SUN 구덕운동장 오후 2시

봉축상징물 점등식 5월 7일(금) 오후 6시 부산역광장

전통대형장엄등 카퍼레이드 5월 12일(수) 오후 3시 부산시내일원

봉축문화의 거리 5월 14일(금) ~ 15일(토) 부산 광복로 일원

불교문화체험, 연등축제 기념 제3회 B-BOY경연대회 및 각종 무대공연

어울림한마당·봉축연합대법회·제등행진 5월 16일(일) 오후 2시 구덕운동장

세계최대길이의 소원성취 염주만들기, 108배 참회정진기도, 특별공연(줄타기, 마상무예, 풍등날리기)

주최·주관 _ 부산시민연등축제봉행위원회 특별후원 _ 문화체육관광부·부산광역시

문의 _ 051)867-0501~3 전송 : 051)867-0504 www.bba48.or.kr www.bba.or.kr

5월 16일(일) 오후 6시 ~ 8시, 2시간 동안 구덕운동장에서 부산역광장까지 교통체제가 실시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양해바랍니다.